

이재명 당대표 출마 선언...민주 당권경쟁 본격화

압승 예상 속 '재선 97그룹'·김민석 등 선전 여부 관심

최고위원 선거 친명 vs 비명...송갑석 호남 첫 최고위원 탄생 주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이 17일 출마 선언을 하면서 민주당 당권 경쟁이 본격화 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전당대회에는 송갑석(서구갑) 국회의원이 출사표를 던져 21대 국회 호남 첫 최고위원이 탄생할 지 여부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 고문은 이를 간의 후보등록 일 중 첫날인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28 전당대회에서 당권에 도전하겠다는 뜻을 공식 선언했다.

반대편에서는 이 고문에 맞서 세대 교체론을 내세운 '재선 97그룹(90년대 학번·70년대생)'에 속하는 강병원 강훈식 박용진 박주민 의원 등 이른바 '양강양박' 의원들이 대거 도전장을 내면서 이들의 선전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여기에 원조 '86그룹(80년대 학번·60년대생)'인 3선의 김민석 의원, '이재명 대항마'를 자임한 이낙연계 5선 설훈 의원, 당의 불허에도 출마를 강행한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 등도 당권 경쟁에 가세했다. 이동환 전 최고위원까지 당 대표 경선에 출마 의사를 밝힌 후보만 9명에 달한다.

'친명(친이재명)' 대 '비명(비이재명)' 구도로 치러질 최고위원 선거에서 친명계가 얼마나 지도부

입성에 성공할지도 이번 전대에서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어대명(아차피 대표는 이재명)'이라는 단어가 보여주듯 유력 대선주자인 이 고문의 압승을 예측하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이미 지난 대선을 거치며 당내 의원들 다수 및 권리당원 다수가 이 고문을 지지하는 이른바 '친이재명계' 성향이 됐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이달 28일 3명의 최종후보를 남기고 컷오프(탈락) 시키는 예비경선에서 중앙위원 투표만 100% 반영하던 기존 룰을 권리당원 투표 30%를 반영하는 룰로 변경한 것도 이 고문에게는 호재다. 이른바 '개딸' 등으로 불리는 강성 권리당원 지지층을 보유한 이 고문이 예비경선 단계부터 대세론을 굳힐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반전 내지 이번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세대 교체론을 앞세운 '양강양박(강병원 강훈식 박용진 박주민)' 의원들이 얼마나 지지를 끌어 모을지에 따라 전당대회 흐름이 바뀔 여지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반적인 전대 구도가 '이재명 대 97그룹'으로 짜이긴 했지만 김민석 의원의 잠재력 역시 무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故 김대중(DJ) 대통령에 의해 발탁된 뒤 남다른 정치역정을 거친 만큼 대중적 인지도가 높고, 지난 대선 경선 당시 정세균 전 국무총리를 도운 이력으로 인해 '정세균(SK)'계의 지지도 받을 수 있다.

'이재명 당 대표 저지'를 내건 설훈 의원은 이 고문의 출마를 반대하는 의원들이나 이낙연계 의원들의 지지를 기대하고 있다.

1차 컷오프 관문에서 8명으로 압축된 뒤 최종 5명을 뽑는 최고위원 선거에서도 '친명(친이재명)' 대 '비명(비이재명)' 간 전선이 선명하게 구축될 전망이다.

친명계에서는 재선의 박찬대 의원이 이 고문의 '러닝메이트'임을 자처하며 출마를 선언했다. 3선 중진으로 최고위원에 도전장을 낸 정청래·서영교 의원 역시 친명계임을 내세우고 있다. 강성 의원 모임인 '처럼회' 소속 초선인 장경태·이수진 의원(서울 동작을)도 친명계 강성 지지층의 지원사격을 받고 있다.

비명계에서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국민소통 수석을 지낸 이낙연계 초선 윤영찬 의원과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초선 고민정 의원이 출사표를 냈다. 여기에 호남 대표격인 재선의 송갑석 의원, 조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의원 모임인 '더민초' 위원장을 맡은 고영인 의원 등은 비명 깃발을 들고 최고위원에 도전했다. 이 밖에도 박영훈 전 전국대학생위원장, 김지수 당 그

린벨트공동위원장, 권지웅 전 비상대책위원 등 청년 원의 인사들도 도전장을 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당대표 출마 강훈식 “광주서 기적 일어날 때마다 승리”

광주 찾아 지지 호소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강훈식(충남 아산시을·사진) 국회의원이 지난 15일 광주를 찾아 "민주당은 광주에서 기적이 일어날 때마다 승리했다. 'DJP 연합'으로 최초의 정권교체를 이룩했고, 노무현을 대통령 후보로 만든 것도 광주의 기적이었다"면서 "민주당의 혁신을 만들기 위해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강조했다.

강 의원은 이날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분향하는 등 지역을 돌며 지지를 호소했다.

강 의원은 "국민께서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민주당이 제대로 혁신하는지 지켜보실 것이다. 정치 자체에 등을 돌리시지 않도록 하겠다. 국민 삶의 변화를 끌어내는, '국민 생활밀착형 정책'을 발굴하는 유능한 민생정당으로 돌아가겠다"도 밝혔다.



또 당 대표와 최고위원 지도부 후보군에 비수도권 인사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 대표 후보 중, 제가 유일한 비수도권 지역구를 가진 국회의원이다"며 "당대표 후보 구성만 보면 현재 민주당은 전국정당이 아닌 수도권 정당이다. 다시, 민주당을 지역마다 각자의 비전이 있는 대선 후보가 있는 당으로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행안부 경찰국 신설 '속전속결'...시행령 입법예고

소속청장 지휘규칙도 예고

중요 정책 장관 승인

행정안전부가 경찰국 신설 최종안을 발표한 날 곧바로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이 상민 장관의 경찰제도개선 계획이 속전속결로 진행되는 모양새다.

17일 부처 입법예고 사이트를 보면 행안부에 경찰국을 두는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안'(행안부령)이 15일부로 입법예고됐다.

행안부는 당초 18일께 입법예고를 할 계획이었으나 날짜를 앞당겼다.

19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21일 차관회의,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8월 2일 시행될 예정이다.

직제 개정령안 입법예고에는 "행안부장관이 경찰청 및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법률상 사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경찰국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13명(치안감 1명, 총경 1명, 총경 또는 4급 1명, 경정 4명, 경감 1명, 경위 4명, 3·4급 또는 총경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이라고 명시됐다.

행안부 공무원 정원표에서 경찰공무원이 12명, 일반직이 1명 증가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신설되는 경찰국은 ▲경찰

관련 중요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제정 ▲국가경찰위원회 안전 부의 및 재의 요구 ▲자치경찰제도 운영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경찰국장은 치안감으로 보한다'는 조항에 이어 '경찰국에 총괄지원과·인사지원과 및 자치경찰지원과를 두되, 총괄지원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총경으로, 인사지원과장은 총경으로, 자치경찰지원과장은 총경 또는 서기관으로 각각 보한다'고 규정됐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조오섭 2년 연속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더불어민주당 조오섭(북구갑) 국회의원이 17일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선정한 제21대 국회 2년차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받았다. 조 의원은 지난해 제21대 국회 1년차 평가에 이어 2년 연속 헌정대상을 수상했고, 올해는 광주에서 유일하게 상을 받았다.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선정,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등 주요 국비사업을 확정짓는데 힘을 실었다는 평가다.

이 상은 전국 270여 개의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법률소비자연맹이 국회의원 300명을 대상으로 2021년 5월부터 1년간 의정활동을 종합평가해 상위 25%(75명)의 국회의원에게 수여했다.

조 의원은 예결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광주시 국비 3조원 시대를 여는데 기여하며, 달빛내륙철도

조 의원은 "민생과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유능한 민생정당, 강한 책임이담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더 낮은 자세로 성실하고 겸손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민주, 서구를 지역위원장 경선 보류 사고지역구 지정키로

더불어민주당이 서구를 지역위원장 선출을 놓고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당초 경선을 실시하기로 했으나 갑자기 이를 보류하고 사고지역구로 지정키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지역 정가에서는 민주당이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선거 때만 호남 구애에 나서고 평상시에는 정치적 텃밭이라며 최소한의 원칙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17일 민주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중앙당 조직 강화특위는 당초 경선이 실시될 예정이었던 광주 서구를 지역위원회와 사고지역구로 정하고 지역위원장 선출을 잠정 보류키로 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비대위는 조강특위의 결정을 이번 주 내에 인

준한 뒤, 새로운 지역위원장 선출 때까지 업무를 맡을 직무대행을 지정할 예정이다.

2년 뒤 총선 전초전 성격을 띤 이번 서구를 지역위원장직 공모에는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 양부남 전 부산고검장, 김경만 비례대표 의원, 이남재 전 광주시 정무수석 등 4명이 신청해 경선을 앞두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차기 대표 체제에서 서구를 지역위원장이 선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 비대위는 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정국에서 민형배 의원의 탈당으로 공석이 된 광주 광산을 지역위원회를 사고지역구로 지정하고, 송남수 씨를 직무대행으로 임명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